

눈사랑한길

2020년(통권69호) | 발행인_정규형 / 편집인_손준용 / 발행_기획실 / 등록번호 인천바0104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5(부평동)한길안과병원 / TEL_032.503.3322 / FAX_032.503.0801 /
디자인_(주)꽃을담다(02.325.9640)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NEWS LETTER HANGIL



2020 spring _ 069

1층 새로운 진료실 증설

빠른 진료실(FAST TRACK) 진료실 2개증설

- 3월 2일, 우리 병원 1층에 새로운 진료실과 검사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길어진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증설 공사를 한 것입니다. 1층 진료실과 검사실은 비교적 가벼운 안질환으로 내원한 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쾌적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빠른 진료실(Fast Track)'로 운영합니다. 약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 다래끼, 각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무청 감사패 수상



- 우리 병원이 1월 17일 병역 자원이행 희망 청년 5명의 시력교정술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 병무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은 2018년 4월 인천병무지청과 '슈퍼 굳건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 1월 까지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5명의 현역 입대 희망 청년에게 무료 시력교정술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바람직한 병역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 병무청의 '슈퍼 굳건이' 사업이란?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병무청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급(보통역)이나 5급(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현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치료를 지원합니다.

인천 유일 안과전문병원인 우리 병원은 시력이 나빠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청년들의 시력교정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원 35주년

- 3월 25일 우리 병원이 3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의 개원 기념행사는 갖지 않았습니다. 1985년 3월 25일 문을 연 조그마한 안과 의원(정안과의원)이 지금은 국내 2위이자 인천에서 유일한 안과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과 한길을 뚝뚝하게 걸어온 우리 병원을 믿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덕분입니다.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 보호자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부디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본원,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

국민안심병원이니까, 안질환도 호흡기질환도 안전하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감염력이 강한 병이 유행하면 아파도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다양한 증상의 환자가 병원에 모이는 만큼 병원 내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신 환자, 보호자 분들은 다음 과정을 거쳐 진료를 받게 됩니다.

- 1 체온 측정
- 2 문진표 작성
- 3 코로나19 발생 국가 및 위험지역 방문 이력 확인
- 4 알코올 젤로 손 소독
- 5 원내로 들어가서 접수 및 진료, 검사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A형)

지난 3월 10일 우리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안심병원(A형)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안과 환자와 호흡기질환 환자의 진료 구역을 분리 운영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는 병원 외부에 설치한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중 안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 외부에 설치한 '안과 격리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안심병원'이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질환자 전용 진료 구역을 비호흡기 환자 진료 구역과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외래진료 만동선을 분리하는 A형과 외래진료와 입원 까지 동선을 분리하는 B형이 있습니다.



감염관리체계 강화

출입구열화상카메라설치,체온측정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내원한 고객 여러분의 체온을 꼼꼼하게 측정합니다.

문진표 작성



내원하는 고객으로부터 문진표를 받아 코로나19 발생 국가 및 위험지역 방문 이력을 확인합니다.

철저한 손 위생 실시



보다 안전한 병원 이용을 위해 모든 고객에게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언제든 손을 깨끗이 소독할 수 있도록 병원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안과 격리진료소 운영



열이 높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 외부에 설치한 안과 격리진료소에서 진료합니다.

병원내 수시 살균소독 실시



원내 모든 공간을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새롭게 합류한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 올해 3월부터 망막, 전안부 분야의 새로운 의료진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1명 더 합류해 더욱더 편하고 안전하게 진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파릇파릇 고개를 내미는 새순처럼 우리 병원에 싱그러운 기운을 더해 줄 의료진을 소개 합니다.



망막센터
신동훈 진료과장

전안부센터
김영준 진료과장

마취통증의학과
윤순영 진료과장

우리 아이, 정말 안경을 써야 할까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시력이 얼마일지', '몇 세가 되면 성인과 같은 시력이 되는지' 여부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아이의 시력이 좋지 않아도 나이가 어려 아직 시력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꽤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시력은 대략 0.05 정도이고 아직 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듯 시력도 발달합니다. 시력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만 5(7)세로, 만 5세가 되면 성인과 비슷한 시력(1.0)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완성된 시력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른의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로 검사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시력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어릴 때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나빠지나요?

A. 아닙니다. 안과전문의가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해도 어린 자녀에게 미안하고 싫다며 미루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치면 시력이 발달되지 않아서 약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경은 물체의상을 망막에 맷히게 돋는 도구일 뿐, 눈을 더 나쁘거나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Q. 약시는 무엇인가요?

A. 각막, 망막, 시신경 등 눈은 정상이지만 안경을 쓰고 시력 검사를 했을 때 교정시력(1.0)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약시'라고 합니다. 특히 양쪽 눈의 차이가 나는 부동시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약시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시는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약시가 있는 아이가 안경을 쓰면 1년 후에는 교정시력이 대부분 회복되지만, 회복이 느린 경우에는 가림치료 등의 약시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세를 넘겨 약시 치료를 시작하면 이미 시력 발달이 끝난 상태여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한쪽 눈이 좋지 않아도 반대쪽 눈을 사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약시가 생긴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 3세 이상의 아이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안경 착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나안시력(맨 눈으로 측정한 시력)과 굴절 이상 정도를 파악해 결정합니다. 만 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정시력 0.6 이하면 안경 착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 근시, 원시, 난시의 굴절 이상 정도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근시만 있을 때는 안경 착용 시기를 늦춰도 괜찮습니다. 근시일 경우 가까운 거리의 물체가 대체로 잘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난시나 원시에 비해 약시로 진행될 확률도 낮습니다. 단, 아이의 신체 발달 속도에 맞춰 안구 역시 자라기 때문에 근시도 계속 진행되다 성장이 멈추는 20대 중반이 지나야 고정되므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근시 정도가 -1.0디옵터 이하로 떨어지면 반드시 안경으로 교정을 해야 합니다. 굴절 이상 정도가 심하면 나안시력에도 영향을 미쳐 시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원시, 난시일 때는 안경을 빨리 써야 하나요?

A. 가까운 거리의 글씨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대부분 원시가 있거나 원시와 난시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원시나 난시가 있으면 근시에 비해 약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경 착용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의 교정시력이 발달되지 않아서 0.6 이하면 안경 착용을 권하고, 굴절 이상 정도와 나안시력을 보면서 안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아이가 자꾸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괜찮은가요?

A. 안경 착용의 원칙은 종일 착용하는 것입니다. 교정시력이 1.0/1.0으로 정상인 경우에는 안경을 도구로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불편할 때) 주로 쓰면 되지만, 대개는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종일 쓰도록 하고 운동 등 움직임이 활발한 활동(Activity)을 할 때 잠시 벗는 것도 무방합니다.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는, 즉 약시인 경우에는 안경은 치료수단이므로 종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 소아사시·약시·신경안과센터는 10년 이상 베테랑 소아안과전문의 2명이 아이들의 눈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수술합니다. 눈 발달 상태 검사는 물론 약시, 사시, 부동시 등 다양한 소아 안과질환의 진료와 수술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눈이 아프면 본인탓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아이의 눈이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말

소아사시·약시·
신경안과센터

김철우
교육수련부장



핫팩 나눔 이벤트

- 지난 1월 22일, 1층 로비에 “핫팩 받아가세요~”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핫팩 나눔 이벤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매서운 바람에 얼굴과 손이 얼얼해질 정도의 날씨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관심을 보였고, 핫팩의 인기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핫팩을 받아가는 분들의 얼굴에는 웃음꽃과 함께 따스한 온기가 머물렀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고생 많다며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한 기획실 조민지 직원은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해 주신 덕분에 더욱 힘을 내 이벤트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소한 이벤트였지만 손은 물론 마음도 따뜻해지

는 좋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을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길안과병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심병원 후원물품 전달식

영스포럼 - 한길안과병원



- 3월 13일, 부평구 소재 지역 문화단체인 영스포럼(이사장 백하은·카리스 호텔 대표)이 병원 직원들을 위해 핸드크림 270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분들의 눈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기에 더욱더 직원들에게 손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으레 알코올 젤로 손 위생을 하는데요, 손을 자주 씻다 보면 손이 쉽게 거칠어지고 건조해집니다. 심할 경우 손끝이 갈라지거나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직원들은 갖가지 핸드크림과 보습크림을 필수품으로 꿽습니다.

영스포럼은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잊은

손 위생으로 건조하고 갈라지는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핸드크림을 후원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영스포럼 장현근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력에 비하면 큰 후원물품은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독제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술환자에게는 기도로 직원들에게는 사랑의 실천으로



행복 선물하는
나이팅게일

문경순 간호이사

문경순 간호이사는 환자분들과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천사'로 불립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타인을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씀씀이가 보이는 덕분입니다. 문경순 간호이사는 늘 수술받는 환자분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진심 어린 기도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받았다는 고마운 마음을 전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생일 때마다 손글씨 카드와 조그마한 선물을 줍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직원에게 도넛과 음료수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따스한 봄날 햇볕 같은 마음결을 지닌 문경순 간호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Q. 한길안과병원과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A. 제가 세림병원(구 안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1985년 3월 25일, 정규형 이사장님의 부평에 정안과의원을 개원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 안과 수술을 안병원 수술실에서 하셨습니다. 실력도 탁월하셨고, 당시는 의사가 권위적인 시대인데 소박한 모습으로 누구와도 격의 없이 지내시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지요. 당연히 모든 직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정안과의원에 수술실을 만들면 저를 부른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꺼이 응답했지요.

Q. 햇수로 26년 근속 중인데, 한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정규형 이사장님의 '사랑'과 '배려'의 가치관이 한길안과병원의 문화로 자리한 점이에요. 게다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선택하고 찾아오시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친절한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왔지요.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느 환자분께서 저에게 원장님(정 이사장님)이 친오빠냐고 물어보시

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여쭈니 가족이 아닌 이상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해드린 것 같지 않았는데, 아마도 진심이 전달되었나 봐요. 이 자리에서 처음 고백하네요(부끄). 이렇게 환자분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은밀한 기쁨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소명의 자리'라고 믿었기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Q. 한길안과병원과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한길의 역사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한길안과병원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상호존중과 인간 중심의 조직문화가 뿌리 깊숙이 자리한 것이 크나큰 자랑이에요. 안과 한길을 걸어온 핵심 가치인 '환자 감동 실현', '안과학 발전 기여', '행복한 일터 조성', '사회공헌 실천'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서 정책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가는 병원인 것이 자랑스럽고요. 2002년 9월, 8박 9일 동안 안과 의료의 불모지였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의 진료하고 수술하며 봉사했던 일은 우즈벡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었고, 참여한 직원

들에게는 큰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전 직원 해외여행 지원 또한 많은 직원들에게 크나큰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꿈꾸기만 했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지경을 넓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병원으로 자라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멋진 한길안과병원을 일군 숨은 일등공신은 이사장님의 부인, 사모님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사모님의 욕심 없는 삶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길안과병원이 있게 되었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에게는 크나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나 일화가 있을까요?

A. 너무도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나는 분은 정안과 의원 시절 오셨던 할머니 환자예요. 본래 잘 살던 분이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젊은 처녀가 죽고 아들 내외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세상을 떠나셨다 하셨어요. 결국 집까지 팔아서 피해보상을 다해 주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와 남겨진 어린 손주가 마음에 걸렸던지 그 집에서 전세방 얻을 비용을 끊다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방을 얻을 수 없어 연고

도 없는 부평으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병원에 오셨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정을 들은 이사장님께서 무료로 수술을 해 주셨습니다. 수술받으시고 너무도 기뻐하시고 감사해하시던 소박하신 할머니의 모습이 여전히 어른거립니다.

Q. 직원들 사이에서 '천사'라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A. '천사'는 하늘에서 살지요. 저는 땅에서 살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먼저 나의 모습을 보기전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키며 살아갈 뿐인데 너무 과분한 표현이고, 단 한 번도 저는 마음으로 그 말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때때로 저에게 천사와 같은 모습이 보였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일 거예요.

Q. 매번 직원들의 생일선물을 쟁여 주시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A. 모든 직원이 아니라 여직원들 생일을 쟁여 주고 있어요. 그냥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고 우리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작은 선물일 뿐인데…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Q. 늘 긍정적이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A.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는 시간을 통해서 영원하신 그분이 제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요…….

Q. 함께 동고동락하는 후배 간호사,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A.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목도하고 있어요. 나홀로 잘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 없고 모두가 뛰어 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끝없는 경쟁은 공멸이라고 생각해요. 공유하고 공생하며 그렇게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삶이 아니라 '살고 살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인니까요!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안과와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력파 의료진의 눈 질환 완벽 케어”

대학병원에 견줄 만큼 우수한 33명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믿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고가의 다양한 첨단 의료장비”

220여 개의 전문 안과 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멀리 해외까지 입소문 난 병원”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로 세계와 경쟁합니다.

한길안과병원만의 특별함

- 6개 전문센터 종일 외래 진료 가능
- 전문센터 간 빠른 협진으로
안과 전 분야 통합진료



언론에 비친 한길안과병원

영상

SBS 모닝와이드

'젊은 총을 위협하는 노인'

조영주, 공민규 진료과장 출연

2020.2.12.



라디오

TBN 도로교통공단 경인교통방송

스튜디오 1005

'눈에 오는 증후, 망막혈관폐쇄증'

이경민 진료과장 인터뷰

2020.2.

'녹내장의 모든 것'

나정화 진료과장 인터뷰

2020.3.19.

신문

조선일보

건강 위해 '1년에 1번' 시력검사 받아야

나정화 진료과장 도움말 게재

2020.1.8.

매디칼타임즈

전문병원 신년하례회…

병원계 현안 근심·걱정 쏟아져

정규형 이사장(대한전문병원협회장
겸임) 인터뷰 게재

2020.1.11.

의학신문 외 2개 매체

한길안과병원 시력교정술 지원

병무청 감사패 받아

2020.1.20.

진료 안내

대표전화: 1577-7117

기타안내: 032) 503-3322

라식센터: 032) 529-1001

평일진료: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 점심시간(12:30~13:30)을 피해서 오시면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경향신문

[주목받는 전문센터·특화병원]

한길안과병원 | 모든 안과 질환

'당일 진료' 체계 구축

2020.1.29.

경인일보

시력성장기 눈감은 부모…

잠깐 쓸 안경 평생 쓴다

김철우 교육수련부장 도움말 게재

2020.4.1.

의학신문

한길안과병원 시력교정술 지원

병무청 감사패 받아

2020.1.20.

